

FINA “조선대캠퍼스 아름다움과 상징성·접근성 훌륭”

마글리오네 회장 세계수영대회 하이다이빙 경기 개최 조선대 방문 대회 붐업 및 온라인 홍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자원봉사자 교육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년' 기념행사를 위해 광주를 첫 방문한 국제수영연맹(FINA) 홀리오 마글리오네 회장이 하이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학교를 방문해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본격적인 대회 홍보가 시작되는 등 세계수영대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9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홀리오 마글리오네 FINA 회장, 코넬 마르클레크스 사무총장, 조이 주버 하이다이빙기술위원, 조영택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등이 7일 조선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제수영연맹 회장 일행은 근대문화유산인 조선대 본관 앞에서 설립역사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학캠퍼스의 아름다움과 상징성, 도심과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다”고 평했다.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가 대회 붐업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교육에 나섰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반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조직위는 8일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대회 붐업 및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년 기념행사일에 맞춰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전국 유명 파워블로거와 뉴미디어 기

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팸투어단은 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해 대회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제는 광주’라는 주제로 열린 D-1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환벽당, 소재원 등을 둘러보고 맛집 탐방을 통해 개최도시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 7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회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하반기 자원봉사학교 개강식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새로 취임한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이용섭 시장과 자원봉사 신청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학교에서 실시하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1, 2차로 접수한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1단계 교육과정인 소양교육을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강하고, 2단계 직무교육은 본인이 선택한 교육장소와 일정에 맞춰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조직위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자원봉사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 12



지난 7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년' 기념행사를 위해 방문한 국제수영연맹(FINA) 홀리오 마글리오네 회장 등 일행이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조선대학교를 방문,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는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14일간 200여개 국에서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경영·다이빙·아티스틱수영·수구·하이다이빙·오픈워터수영 등 6개 종목이 남부대, 영주체육관, 조선대학교,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등에서 각각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 12일 나누서 열려...54명 채용

광주·전남지역 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 구직자가 만나는 ‘에너지 밸리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2일 나주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다.

전남도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나주시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 밸리 입주 기업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2016년부터 이어졌다. 지난 2년간 46명이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인택전기전자(주), (주)탑인프라, (주)누리텔레콤, (주)피앤씨테크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20개 기업이 5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3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는 구인난 해소, 구직자에게는 전남 미래 유망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현장 면접·채용 상담이 이뤄지는 기업 채용관 20개, 유관기관별 취업컨설팅관 6개,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관 등 부대행사관 4개 등 총 30개 부스가 운영된다.

최형열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입주 기업들이 구인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하고, 인재들은 미래 산업인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도록 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시도의회 벌써부터 민주 1당 독점 폐해

원구성 놓고 마찰·자리 나눠먹기 구태

민선 7기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광주·전남 지역 지방의회 원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의원 간 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지역 지방의회의 공식 개원 전, ‘자리 나눠먹기식 의장 선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의회는 “의장·부의장·상임의원장 후보 정견 발표회를 지난 6일 열기로 했지만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단에 입후보한 당 소속 의장 후보 3명, 부의장 후보 4명과 상임의원장 후보 7명의 정견발표회를 하기로 해 “특정정당이 개원 전에 모든 직책을 나눠갖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현재 23명의 시의원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원 전에 의장, 부의장 후보들의 정견을 듣는 게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앞서 내부 협의한 의장, 부의장, 위원장 후보군이 전체 민주당 시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정견발표회가 무산됐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전남도의회는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의원들간 담합과 인기 나눠먹기 구태가 나타나고 있다. 당초 의

장 선거에 뛰어들 3선 이상석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갑자기 사퇴하면서 인기 나눠먹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사퇴 이유에 대해 “3선 의원들끼리 분열되면 자칫 필패할 수 있으므로 3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나눠 출마를 하면 적극 돕겠다는 다수 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에서도 원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김옥수 민주당평화당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8일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의원 제안으로 민주당·민중당이 연대해 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실제 의장 선거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임의원장 선거에서도 3석 가운데 1석을 소수당에 배려하기로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실패했다”며 “이에 평화당과 민중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양시의회에서는 의회 개원일이자 의장을 선출한 지난 2일 시민단체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회도 전에 의장을 추대한 데 대한 항의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산구, 민선 7기 들어 광주시와 갈등 해결책 모색

재난기금 사용 감사처분 소송 취하 등

민선 6기에 부구청장 임명권과 재난기금 사용에 따른 감사처분을 놓고 광주시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던 광산구가 민선 7기 들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광산구는 그동안 광주시와 갈등을 빚었던 2가지 사안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는 등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삼호 구정장은 지난 2일 취임과 함께 그동안 재난기금사용과 관련한 광주시의 감사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각종 법적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 또한 부구청장 임명권과 관련하여서도 올해 말 광주시와 5개 구정장이 상호 협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장의 이 같은 조치는 민선 6기동안 빚어진 광주시와의 갈등이 민선 7기까지 이어질 경우 공직 내부에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실제로 광산구의 경우 부구청장 임명권을 놓고 지난 2015년 광주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시 내정된 윤기봉 부구청장이 3개월이나 늦게 임명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광산구는 윤 부구청장이 명예퇴직을 하자 ‘광주시와 구청 간 협의 및 인사교류를 통해 부구청장을 임명해왔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또다시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발령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산구와 이뤄져 왔던 하위직 인사교류까지 단절했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가 ‘학교우레탄 철거’ 사업을 집행하자 광주시는 ‘우레탄 철거사업에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감사처분을 내렸으며, 광산구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김삼호 구정장은 “광주시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기 보다는 상생 차원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더 이상 갈등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빚고을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추진

광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빚고을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16일부터 9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제2순환도로, 빚고을대로 등에 방음시설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비용 문제는 물론 공사기간 교통 정체, 미관 훼손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시는 북구 동림동 유일가든APT 앞 빚고을대로 중앙분리대에 길이 220m, 높이 12m 규모의 방음

벽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소음민원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왕복 8차로 중 부득이하게 중앙부 상·하행선 각 1차로씩 총 2차로를 점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교통 통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안전을 위해 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 2018 GWANGJU 정음성음악축제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문화재단** **TIMF** 후원 **국립광주예술센터** **GM** 후원

문의: 광주문화재단 062-670-7469 / 670-7467 <http://jysfestival.kr>

정율성 & 윤이상

교류음악회

2018. 7.13 Fri 7:30pm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2018. 5.15 Tue - 10.25 Thu

2018

VOCAL MUSIC COMPETITION OF WANGJU

광주성악콩쿠르

1차예선

남자 2018. 8. 11(토) 호남신학대학교 명성홀

여자 2018. 8. 11(토)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

2차예선

2018. 8. 18(토)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

본선

2018. 8. 25(토) 빚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